



좋은 친구

FRIENDS

2024. 1.
Vol.016

사단법인 프렌즈는 2006년 오륜교회와 뜻있는 분들이 심은 소중한 씨앗으로 시작되어, 현재의 국제구호개발NGO로 성장하였습니다. 외교부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지구촌 19개국 29개 사업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표지 이야기



인도네시아 PSA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담긴 헨즈온 필통을 선물했습니다.



프렌즈와 함께 지구촌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는 후원자님, 올 한 해 더욱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가득 넘치길 기원합니다.

반기간 <좋은친구 FRIENDS> vol.016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하반기

발행정보	제16호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장 이하 가나다 순
발행일	2024년 1월 31일	이사장 김은호(오륜교회 설립목사)
발행인	김은호	이사 김명진(크리스탈치과 원장)
기획편집	(사)프렌즈 대외협력팀	신현수(코모키이비인후과 원장)
주소	서울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옥유수(주)두리푸드시스템 대표이사)
전화	02-483-5007	윤승철(시카고치과 원장)
E-MAIL	friends@hifriends.or.kr	최병룡(밝은누리안과 원장)
Facebook	hifriends153	감사 마철현(세무법인 민화 대표 세무사)
	검색 '사단법인프렌즈'	

2023년 7월 1일~ 12월 31일 신규 후원자분들입니다.

개인 강하나 김도현 김민숙 김연수 노진우 민등군 변정환 서미경 오학성 유주미 이강산 이고은 이순규 이진영 이충성 장원태 진미수 최종택 한정수 한지현 황금숙 JIEUN PARK

단체 (재)케이티앤지장학재단 (재)호월승암재단 (주)더블유인테리어 (주)세토웍스 (주)에스엔팩토리 (주)에프앤디넷 (주)제뉴원사이언스 세종공장 (주)제뉴파마 (주)케이플러스펌 빛가람포도약국 서울법인재무설계센터(주) 승진기업

“ 프렌즈의 가족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CONTENTS

- 04 인사말
신현수 (사)프렌즈 이사
- 05 해외사업 '하나'
조용한 미소의 나라
라오스를 다녀와서
- 09 해외사업 '둘'
사랑이 불러 사랑을 일깨워준,
내 사랑 숨바
- 16 국내사업 '하나'
구립 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의
행복한 발자취를 돌아보며
- 18 후원자스토리
컬러는 사랑입니다
- (사)한국컬러테라피협회
- 21 후원안내
친구를 기다립니다
- 22 프렌즈 News
2023 프렌즈 하반기



사단법인 프렌즈 이사 신현수

사단법인 프렌즈를 사랑해 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그리고 저희 소식지 『좋은 친구』를 기다려 주시는 애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무척이나 바쁘게 느껴졌던 2023년이 지나가고 어느덧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희 프렌즈에도 무척이나 의미 있던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튀르키예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2회에 걸쳐 긴급구호봉사단을 구성해 파견했던 일입니다.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고, 도로 유실로 접근이 쉽지 않은 먼 나먼 길을 달려가야 했지만, 난민들에게 후원자님들의 사랑이 담긴 식량과 의약품 등의 긴급구호 물품을 나누어주고, 무너진 집과 시설물을 보수하며 위로해 드릴 때, 지진 속에서도 자신들을 돕기 위해 기꺼이 달려와 준 우리 봉사단원들을 꼭 안아주고 함께 눈물을 글썽여 주었던 난민들의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우간다 프렌즈 사업장에 리더십훈련센터를 준공하여 방문했던 일도 무척이나 기억에 남습니다. 현지인분들과 저희가 하나되어 치렀던 개관식에 가슴이 뭉클했고, 행사 후 인근 학교에 방문해서 어린이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학생들의 기숙사와 교실을 둘러보며 아프리카의 미래가 될 어린이들을 위해 저희가 도울 일이 무얼까 찾아보다가, 컴퓨터 교육실을 지원하게 된 일도 무척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2019년 여름 이후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프렌즈봉사단을 4년 만에 다시 현장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숭바, 인도 람강가와 콜카타 그리고 필리핀 타클로반 지역으로 나아갔던 봉사단원들이 의료지원과 어린이 교육, 문화교류 등의 활동을 통해 절실한 필요를 채우고, 마음을 나누며 위로해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정말 큰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봉사단에서는 후원자님들이 그간 애써 만들어주시고 기꺼이 후원해 주신 예쁜 프렌즈 에코백과 필통, 티셔츠 등의 물품을 현장으로 가져가 현지 어린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는데, 아이들이 그 사랑의 선물에 기뻐하며 짱충짱충 뛰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우리 프렌즈를 사랑하시는 후원자님들과 애독자님들은 2024년 올 한 해가 어떤 해가 되기를 소망하며 계획하고 있으신지요? 성경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40)”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올 한 해 프렌즈가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후원자님들의 사랑을 가득 담아 지구촌 곳곳을 누비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와 여성과 난민, 가난한 자, 아픈 이들과 같은 우리 결의 ‘지극히 작은 이들’을 찾아가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좋은 친구』 프렌즈가 되고자 합니다. 이 여정에 올 한해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더 큰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용한 미소의 나라 라오스를 다녀와서

- 라오스 출장기 -

꽃보다 라오스

‘라오스’를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꽃보다 청춘’에서 3명의 청춘들이 시장을 돌아다니며 옷이나 샌들을 사고, 다이빙과 수상스포츠를 즐겼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후 라오스는 ‘베낭여행의 성지’로 부상했었지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저렴한 물가, 안전한 치안과 친절함은 라오스를 여행지로 선택하기에 충분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중국, 태국, 미얀마, 베트남, 캄보디아 등 주변 국가들로 둘러싸인 라오스는 바다와 접하지 않은 내륙국가이며,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또한, 중국과 인접한 북쪽으로 갈수록 험준한 산악지대가 많은데 프안밋 학교가 위치한 우돔싸이 지역 또한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돔싸이 지역에서 시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은 조그마한 분지 지역이라, 시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소수이고 나머지 90%는 소수민족으로 산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안밋학교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산속에서 화전을 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라오스에 도착하여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사람들과 눈인사를 하며, 고속열차를 타고 우돔싸이 지역으로 향하였습니다.

고속열차를 타고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엔에서 우돔싸이 지역으로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거나 고속열차를 타는 방법입니다. 라오스-중국 철도(Laos-China Railway)는 라오스와 중국 쿤밍을 관통하



1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사원들
2 고속열차 역사 전경

는 국제철도로, 수도인 비엔티엔까지 연결되어 있고 라오스의 주요 도시들을 지나갑니다. 중국 일대일로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에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전면개통되었는데, 수시로 결항이 발생하는 국내선보다 좀 더 안정적인 이동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철도에는 명암이 있는데, 이동이 편리하고 교류가 활성화 된다는 장점과 동시에, 외국 자본의 과도한 유입은 라오스의 경제적 의존도를 심화시키는 약점이 되기도 합니다. 건설과정에서 라오스 정부는 외환보유고 보다 많은 빚을 지게 되어 이를 탕감하고 유예해 주는 대가로 국토의 일부를 중국에 양도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를 알지 못한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프안밋 학교 전경 오른쪽에서부터 유치원-초등학교-중고등학교 순

드디어 만나게 된 프안밋학교

우듬싸이주의 주도인 므앙싸이 기차역에 도착하니, 반가운 얼굴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바로 프안밋학교의 교감 선생님이신 이경희 활동가였습니다. 한국에 방문하실 때 뵙다가, 라오스에서 직접 만나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시내를 지나 울퉁불퉁한 흙길을 달려 프안밋학교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지반이 약하고 비가 오면 땅이 쉽게 패여 주기적으로 보수해주지 않으면 차가 다니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동차가 조금나 더 힘을 내고 버텨주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프안밋학교에서는 귀여운 친구들이 학교 문 앞에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색종이로 곱게 만든 환영 목걸이도 받았는데 어떤 선물보다도 값지고 기뻐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보고 이야기 들던 학교와 아이들을 실제로 보니 훨씬 더 반갑고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프안밋학교는 마치 캠퍼스처럼 생겼는데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기숙사 등이 알맞은 거리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고등학교부터 건축하기 시작했고, 2017년에 개교하였는데, 지역사회로부터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 유치원과 초등학교 건물도 건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학교에

애정을 갖고 정성스레 관리하는지 느껴졌고, 외관과 내부 모두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는 한국에서 온 봉사팀이 예쁘게 칠해준 벽화가 있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의 수고와 사랑이 이곳에 들어갔는지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라오스 출장에서 무엇보다도 제일 기대했던 것은 장학금을 받는 결연 아동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프안밋학교와 프렌즈의 인연은 201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비를 마련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결연사업을 통해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을 보니, 사진으로 봐왔던 반가운 얼굴들이 가득하여 '후원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을 직접 보실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대신해 왔다는 생각에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아이들과 만나보니 초롱초롱한 눈망울들이 한국 후원자들의 후원을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프렌즈에 대해 소개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고,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난히 키 큰 남학생이 일어나서 유창한 영어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매우 기쁘고 저를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곳에 입학시험을 볼 때는 꼴찌 성적이어서 입학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저를 받아 주시고 장학금을 주셔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학교뿐 아니라 이 지역 전체에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 학생을 시작으로 여러 학생이 붓물 터지듯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여학생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전하는 진심어린 인사를 들으며 마음에 잘 새겨두었다가 나중에 후원자분들께 전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얼굴을 직접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멀리 라오스 땅에 있는 저희를 위해 오랫동안 후원해 주시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소수민족이라서 라오어(공용어)를 알지 못했습니다. 프안밋학교에 와서 라오어를 배우게 되었고, 더 좋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졸업하기 전에 만나 뵈어서 큰 영광입니다. 저와 동기들은 졸업하지만,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될 후배들이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계속 후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이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라오스 사업장에서는 현지 스태프들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가정방문을 통해 신규 결연 아동을 신청합니다. 이번에 결연 아동 3명의 가정을 방문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워낙 깊은 산속에 사는 경우가 많고, 거주환경이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 어떻게 아이들이 살고 있는지 피부적으로 와닿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곳에는 화전민들이 많아서 부모님들이 멀리 농사지으러 가시면 비어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은 춥고 어두운 집에서 부모님을 기다리면서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그들 중에서 학업기회를 얻는 아동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 프안밋학교는 뛰어난 시스템과 교사들이 있고, 학구열이 뛰어난기로 유명한데 공용어인 라오어와 영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도 아이들의 미래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번 가정 방문에서 깊은 산속 외딴 오두막에 거주하면서 고무채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가정, 앓을 볼 수 없는 아빠와 지적 장애를 갖고 있는 엄마와 함께 살아가는 가정, 언제 집이 헐리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빈민가의 가정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모로서 좋은 것을 줄 수 없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후원을 통해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과 성장에 삶의 의미와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방문한다는 소식에 바쁜 일상을 기꺼이 멈추고 소중한 시간을 내어준 분들이 참 고맙습니다.

저희가 방문한 가족들은 대개 소수민족이고 부족어로만 소통이 가능해서 동행한 현지인 스태프의 통역을 통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선물할 쌀과 계란을 구매하고 험한 산길을 이동할 때도 현지인 스태프의 도움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이번 출장을 통해 그들의 귀한 수고와 역할에 대해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 방문도 가능했고, 신규아동 발굴과 결연사업의 유지가 가능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후원금이 꼭 필요한 친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고 물건을 나르며 아이를 만나는 현지 스태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프렌즈가 프안밋학교와 하고 싶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라오스에 있는 학생들을 연결해주는 것인데요, 함께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한국어를 가르쳐 줄 수도 있으며 라오스 문화를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면서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세계시민으로서의 소양을 배울 수 있게 되고요. 프안밋 친구들은 한국 친구들에 대해 관심이 많고 활발한 온, 오프라인 교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렌즈에서는 수년간 프안밋학교를 위해 후원하며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에 관

심을 갖고 있는 '꿈미학교'를 비롯해 한국의 여러 청소년들과 프안밋 친구들이 만날 수 있는 준비를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봉사단을 비롯해 한국어를 가르쳐 줄 선생님이나 미술, 음악, 체육 선생님도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 프안밋을 사랑하는 한국의 많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통해 한국과 라오스가 더 많이 가까워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좋은 친구

이번 라오스 출장을 통해서 후원하는 아동을 만나고 가정을 방문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위로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누구보다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며,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울고 또 웃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결연 아동들과 프안밋 친구들이 앞으로 훌륭하게 자라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함박웃음을 안겨주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프렌즈의 사업을 통해 더 많은 라오스 아이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좋은 친구 프렌즈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가능합니다. 친구들의 당부처럼, 프안밋과 라오스를, 이들의 미래를 잊지 않고 응원해 주세요. 그 응원에 힘입어 미래의 어느 날 또 다른 감동을 안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사랑이 불러 사랑을 일깨워준, 내 사랑 쉰바

- 인도네시아 쉰바 의료봉사단 10년의 기록 -



프렌즈 봉사단은 2007년 8월 인도 파견을 시작으로 2023년까지 네팔, 우즈베키스탄, 인도,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필리핀 등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현지에서 만나게 될 이웃들을 위해 수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편히 쉴 수 있는 휴가와 명절 연휴를 반납하고, 물도, 전기사정도, 이동도 쉽지 않은 오지라도 기꺼이 기쁨으로 길을 떠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2023년 10회차 활동을 마친 인도네시아 쉰바 의료봉사단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작하며

2011년부터 시작된 인도네시아 쉰바 의료봉사단이 2019년 활동 후 코로나로 멈추었다가, 2023년 재개되어 10번째 봉사를 다녀올 수 있었다. 매년 가던 곳을 못 가게 되었다가 다시 가니,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10년간 있었던 많은 사랑의 이야기들을 이 작은 지면에 다 적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느끼며 글을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 그러다 10년을 의료봉사 현장에 늘 함께해 주었던 작은 딸의 조언에 따라 몇 가지 에피소드만 간략히 적어보고자 한다.

쉰바 의료봉사단의 시작과 전세기 사건

인도네시아 첫 의료봉사는 말랑이라는 도시에서 시작했다. 그곳에서 2년간 진행하다가,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낙후된 섬인 쉰바에 의료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봉사지를 옮기게 되었다. 그렇게 쉰바 의료봉사단으로 시작한 첫해인 2011년,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났다.

쉰바는 직항이 없어, 발리를 거친 후 인도네시아 국내선으로 갈아타 2시간 정도를 더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다. 그때 우리도 발리에서 1박을 하고 쉰바로 가는 국내선을 타기 위해 공항에 갔는데, 우리가 탈 비행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다음 날 다시 공항에 갔으나, 여전히 비행기는 없었고 5일 후거나 가능하다고 했다. 사실상 쉰바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당시 봉사 단장이었던 나는 단원들과 공항 마당에 모여 기도하며, 긴급히 의견을 모았고, 전세기를 타고 쉰바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당시 전세기 띄우는 것이 가능했던 자카르타에서 비행기를 세워 현지 교민들에게 5만불을 긴급히 지원받아 무사히 동승바 와잉아푸공항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 비용은 귀국 후 봉사단원들이 형편껏 후원금을 모아 전부 다시 전해주었는데, 그러고도 후원금이 남아, 태풍에 무너진 건물 2곳도 건축해 드릴 수 있었다. 첫해부터 이런 헌신의 기쁨을 배웠기에, 10년 동안 봉사단이 그곳을 사랑하며 지속적으로 다녀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숨바 빨루뵘장마을에 첫 발을 내딛다

첫해 봉사단은 2일 늦게 도착해 봉사할 수 있는 날이 3일로 줄었지만, 단원들 모두 너무 행복했다. 우리가 전세기를 타고 들어왔다는 소문이 숨바에 알려지자, 숨바 도지사가 나와 우리를 환대해 주기도 했다. 시내에서 하루 봉사를 하고, 다음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던 산골 빨루뵘장마을로 향했다. 비포장도로에 절벽 같은 능선을 타고 아슬아슬하게 달리는 트럭 안에서 조마조마하기도 했지만, 숨바 절경에 마음을 빼앗겼다.

덜컹거리는 '숨바 특급 리무진'을 몇 시간 타고 마을에 도착하니, 마을에 최초로 온 외국인 의료진들을 위한 전통 환영식으로 시골벽적했다. 북을 치며 '아라라라'하는 노래를 부르며 금줄을 쳐 놓고 칼을 든 남자가 함참 춤을 추다가 친구를 환대하는 의미로 금줄을 열어주어 마을로 들어갔다. 그리고 '까인 떠눈' 이라고 불리는 목소리 같은 것을 걸어주었는데, 숨바의 특산물인 까인 떠눈은 손님에게 최고 존중의 의미며, 일교차가 심하니 밤에 추우면 덮으라는 의미도 있다고

1 숨바 특급 리무진(개조된 트럭)
2 마을 환영식에서 함께 춤추는 모습



했다. 이어서 여자아이 대여섯 명이 '따리안 끄라빠란(배고픔을 이기는 춤)'을 추었는데, 그 춤을 보는 내내 마음이 아프기도 했다.

의료봉사로 사랑의 기적

마을 의료봉사는 대성황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 산길을 대여섯 시간 걸어야 올 수 있는 마을에서도 진료를 받으러 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마땅한 진료 장소가 없어, 그 지역의 작은 교회에 짐을 풀었는데, 그날 1,500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도 수백 명은 되돌려 보내야 했다. 참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수십 건의 외과수술로 사람들의 크고 작은 중앙과 외과적 질환을 수술했는데 마치 야전병원을 방불케 했다. 자정 넘어까지 진료를 하고 잠자리에 들 때면, 의사가 되어 내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날임에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이 났다. 와잉아푸 시내에 있는 유일한 병원에서는 우리 봉사단 안과외과사가 늦은 밤까지 백내장 수술을 해서 3일간 30여 명 환자의 눈을 뜨게 해주었다. 정말 꿈같은 일, 기적의 현장이었다.

해마다 차이는 있지만 매년 봉사단의 의료진은 의사가 6~10명, 간호사가 1~4명, 약사가 1~2명 정도 참여했는데, 그 인원으로 약 2,000명의 환자를 외래진료하고, 50~100명의 외과수술, 200~300명의 치과 치료 등을 진행했다. 그러니, 10년이면 연인원 2만 명 가량을 진료하고 500~1,000명 가량의 외과 수술과 2,000명 이상의 치과 치료를 했다고 볼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치료를 위한 감사한 손길들

숨바섬 사람들은 평생 의사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고 살다 처음으로 우리 의료진을 만난 분들이 대부분이었다. 일단 기생충이 너무 많아 가는 곳마다 기생충 약을 나눠줬는데, 사상충 감염으로 다리가 꼬끼리처럼 부은 사람, 한센인, 말라리아로 생명을 잃는 사람도 많았다. 어린이들은 거의 절반 이상 만성 화농성 중이염으로 고막이 뚫려있거나 고름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몇 년간 귀가 안 들려 찾아온 아이는 양쪽 귀의 귀지를 제거해 주니 잘 들린다며 춤을 추기도 했다.

선천성 기형을 가진 사람도 많았다. 그중에 따마르, 뿌뜨리는 구순구개열로 한국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숨바를 갈 때마다 나를 찾아와 안기며 감사 인사를 하는 것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난다. 안드레아스, 메일린, 옥타비나까지. 봉사단이 현장에서 발견한 안타까운 아이들이 프렌즈와 돕는 손길을 만나 새로운 삶을 선물 받았다. 이렇듯 10년간 팀 활동을 위해 정말 많은 분이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 이 일을 감당해 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3 사상충 감염으로 꼬끼리처럼 부은 다리
4 구순구개열이 있었던 소녀 따마르





5 양치질 방법을 알려주는 모습
6 후원받은 치약, 칫솔, 양치컵과 함께

구강보건 사업을 진행하다

나는 이비인후과 의사라 환자들의 구강을 자주 진찰하는데, 숨바 사람 중 자기 치아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드물었다. 봉사단원 중 치과 의사들은 단기간에 치료를 위해서 치아를 살려 치료하는 것보다는,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심각한 충치를 발치하는 것이 주된 치료였다. '건강한 치아가 많이 남아 있어야 잘 씹어서 영양 섭취도 잘 될 텐데'라는 안타까움에 프렌즈에 도움을 요청하여 구강보건 사업을 시작했다. 어린 나이부터 양치질의 습관을 갖게 하면 조금이라도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치약, 칫솔을 만드는 국내 대기업으로부터 치약, 칫솔, 양치컵을 후원받아 마을과 학교 곳곳을 다니며 구강위생의 중요성을 강의하고, 양치질하는 법을 가르쳐주었다. 식수에 대한 불소화 사업도 필요했지만, 식수 자체가 너무 부족한 데다가 불소를 통관시키기도, 현지에서 구하기도 어려워 진행하지 못했다. 그래도 구강보건 사업을 통해 아이들과 부모들이 구강 보건의 중요성을 깨닫고 실천하게 된 것에 의미를 두고,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었으리라 믿는다.

메마른 땅에 생수가 흘러넘치기를

숨바가 열악해진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물부족' 때문이다. 봉사단도 산골 마을로 들어갔을 때는 물티슈로 손도 닦고 세수도 하고, 종종 샤워 대신 목도 닦는다. 머릿도 하루는 버티거나 드라이 샴푸를 써서 물 없이 털어내는 단원들도 있었다. 현지 물은 석회수이거나 오염된 경우가 많아서 생수를 트럭에 싣고 갔는데, 물을 마시는 것조차 현지인들에게 미안할 정도였다. 그러니 생수로 양치질을 할 때면, 물 뺀 것이 조심스러워 사람이 다니지 않는 건물 뒤에서 조심스럽게 하곤 했다. 몇몇 마을은 프렌즈 후원으로 우물이 생긴 마을도 있다. 그런 마을은 먼 곳으로 물을 길러 다니지 않아도 되니 얼마나 고마워하고 행복해하는지 모른다. 숨바를 다녀오면 집에서 물을 틀어놓고 양치하거나 샤워할 때 그곳 사람들이 생각나 얼른 잠그게 되고, 풍족하게 물을 쓸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된다.



건물 뒤에서 양치질하기



피로를 날려주는 최고의 주방팀

밥을 나누고 식량을 지원하다

앞서 말했듯 물이 부족하니 숨바에서 농업이 잘 안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래서 고구마, 카사바 등 구황작물 1개 또는 옥수수 1개로 며칠을 버티는 사람들이 많다. 프렌즈에서 해마다 식량지원사업으로 쌀과 라면, 식수를 제공해 10~12월의 보릿고개 시기를 버틸 수 있게 해주고 있지만, 때론 태풍과 홍수 등의 재난으로, 또는 엄청난 메뚜기떼가 창궐해서 마음을 참 아픈게 한다.

봉사단이 방문했을 때라도 풍성함을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주방팀은 한국에서 김치, 깻잎, 오징어무침, 김 등 밑반찬과 라면 스프, 카레, 간식거리 등을 준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먹을 만큼 풍족하게 밥을 하고 모든 반찬을 내놓는다. 그럼 정말 그곳 주민들은 밥을 산처럼 퍼서 드신다. 봉사단도 오지 마을에서 1박을 하며 봉사하고 나면, 모든 단원이 지치는데, 그때 주방팀이 라면과 누룽지를 내놓는다. 비록 인도네시아 라면에 한국에서 모아온 라면 스프를 넣어 끓인 것이지만 맛이 끝내준다. 그리고 구수한 누룽지도 지친 마음을 푸근하게 해준다. 그럼 그간의 피로가 어디론가 다 사라진다.

전기가 없는 곳에 불을 밝히다

숨바의 산골 마을에는 전기가 아예 들어오지 않아, 해가 지면 마을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데, 이때 밤하늘이 정말 아름답다.

수억 개의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데, 구름처럼 흐르는 곳을 자세히 보면 그 작은 점들이 모두 별이었다. 은하수다! 학교 마당이나 동산에 올라가 매트 깔고 하늘을 보면 20~30분만 있어도 수많은 별뿔뿔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장관이 숨바에 10년을 가도 또 가고 싶게 만드는 것 같다.

한편으로는 전기사정이 열악하다 보니, 활동할 때 수술팀에서 전기소작기를 작동하거나, 치과에서 드릴을 쓰거나, 약국에서 약 포장기를 쓰면 전체 전기가 나가버렸다. 그러던 2013년, 한국중부발전으로부터 수천만 원어치의 태양광 랜턴을 기부받는 기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대표님을 만나 숨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엇을 도와주면 되는지 물어보셔서 현지 환경에서 관리가 가능한 태양광 랜턴을 말씀드렸다. 대표님은 흔쾌히 승낙해주셨고, 직원 두 분도 우리 봉사단에 함께 참여하게 해주셨다.

덕분에 방문한 가정마다 태양광 랜턴이 전달됐고, 숨바 도지사께서도 특별히 관사로 초대하여 감사 인사를 해주셨다. 마을 사람들이 밤에도 필요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아이들도 밤에 책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또 랜턴에 있는 USB 포트에 긴급 시 사용하던 휴대폰 충전도 가능하게 되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비록 용량은 작은 것이지만, 마을 집집마다 마치 작은 태양광 발전소를 놓아드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 너무 기쁘고 감사했다.



기부받은 태양광 랜턴과 함께 도착한 봉사단

무너지고 열악한 마을의 곳곳을 세우다

숨바에서의 첫해, 단원들이 모은 후원금이 전세기 비용보다 더 많이 모여, 남은 후원금으로 태풍에 무너졌던 건물 재건에 사용했다. 이후 봉사단은 건축을 위한 후원도 꾸준히 하였고, 지금까지 학교 1곳, 마을 센터 12곳, 주택 3곳을 지어드렸다.

한번은 그 마을 주민을 평생 섬겨온 한 현지인 활동가 집을 방문했는데, 낡은 나무 침대에 불피우는 도구조차 없고, 천장에는 쥐들이 뛰어다녔다.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파, 그분의 집을 지어드렸는데, 다음 해에 다시 가보니 그분이 아직 그 집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이유를 물으니,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축복기도를 해드리기 전까지는 들어갈 수 없었다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말을 듣고 정말 가슴이 찡했다. 한 빈민가 마을 초등학교는 건물이랄 것도 없이 나무로 만든 가벽에, 가느다란 나뭇가지를 엮어 만든 책걸상, 바닥은 흙먼지로 가득했다. 우리는 너무 안타까워 프렌즈에 후원해 학교를 지어드렸고, 이제는 튼튼한 학교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쁘다.

숨바를 사랑한 나의 가족 이야기

숨바팀에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분들도 많다. 우리 가족에게도 봉사단은 너무나 큰 축복이었고, 온 가족이 10년을 함께 같은 곳에서 의료봉사를 해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다.



이비인후과 의사인 나는 현장에서 주로 외래진료를 보았고, 병리과 의사인 아내는 환자 접수와 예진, 각 과에 진료 배분, 대기 환자가 몰릴 때는 직접 진료를 담당했다. 특히 환자들의 기본 검사뿐 아니라, 진료 속도를 조절하고,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를 선별, 섬세한 촉진으로 종양을 판단해 수술 시 위험을 줄여준 큰 역할을 했다. 돌이켜 보면, 아내의 헌신적 도움으로 의료봉사가 10년간 계속될 수 있었던 것 같다.

숨바팀이 첫 활동을 했던 2011년, 나의 두 딸은 중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문화공연도 하고 숨바 아이들과 피약벌에서 같이 뛰어놀았다. 그렇게 매년 1주일이었지만 숨바 아이들과 함께 자랐다. 고등학생 때는 의료팀 보조를 하면서, 의료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꿈을 키운 것 같다. 감사하게도 두 딸 모두 그 꿈을 이루게 됐다. 2023년에는 큰 딸이 처음으로 의사로서 봉사단에 참여했는데, 딸이 집도의로서 수술용 헤드 랜턴을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집도해내는 모습을 보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숨바의 가장 소외된 여성들을 돕기 위해 산부인과 의사에 지원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꾸준히 해온 봉사가 아이에게도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너무나 감사했다. 앞으로 두 딸이 더욱 훌륭한 의사가 되어 많은 생명을 살리고, 봉사 현장에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기도한다.

맺음말

인도네시아 숨바 의료봉사단이 지난 10년간 활동을 잘할 수 있게 도와준 프렌즈에게 참 감사하다. 봉사단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회복과 위로를 경험했고, 무너지고 열악했던 학교와 건물이 세워졌으며, 가난한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게 되었다. 또한, 단원들에게도 가치 있는 삶에 대해 가르쳐 주었다. 특히 봉사단에 참여한 다음 세대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도전하게 해주었다. 앞으로도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숨바를 지속적으로 잘 섬기고, 더 나아가 지구촌 곳곳의 이웃들을 위해 계속해서 선한 일들을 하는 봉사단이 되기를 바라며, 의료봉사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일꾼들을 세워나가길 소망한다. 그리고 그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탬 수 있는 나와 우리 가정이 되기를 소망한다. 숨바 의료봉사단 파이팅!



구립 길리청소년 지역아동센터의 행복한 발자취를 돌아보며



어쩔티비, 저쩔티비, 안물안궁~
 (몸을 흔들며)쿠쿠루뽕뽕~
 아이들이 잘 놀다가도 의견 조율이 안 되면
 티격태격하는 겨울방학입니다. 맹렬한 추위에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돌봄이 길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외계어를 배우게 됩니다.
 아이들 또한 이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공손하고 아름다운 언어 표현과 함께 또래
 언어와 예의 바른 언어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할 줄 아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맞이하는 첫 마음

2019년 11월, 처음 문을 연 구립 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가 아이들과 함께한 지 4년이 지나고 있다니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센터를 개소할 때, 강동구 내 여러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우리 센터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차별화된 곳이 될 수 있을지 고민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돌봄'이라는 테두리 안에 가두지 않고, 예민한 사춘기 아이들이 낙인감 없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센터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과 기대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각자 다양한 고민을 애써 누르며 지내는 아이들에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잘 찾을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응원하며, 주위 친구들도 한 번쯤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친절한 어른들이 항상 옆에 있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센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 생각하며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데믹 속에서도 꽃피운 웃음

센터가 개소하고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컨디션 난조로 조퇴하기도 하고, 교실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학교를 쉬기도 하였습니다. 센터도 종종 휴원이 되었지만, 휴원 시에도 센터 선생님들은 출근하여 긴급 돌봄을 지속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때 보호자님께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아이들에게 말 좀 잘 전해주세요~"라는 간절한 호소였지요. 휴교와 휴원으로 집에 있는 아이들이 밤낮이 바뀌어 밤새 게임만 하고,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자니, 화가 나는 보호자와 아이들의 감정싸움이 맨날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센터는 아이들을 움직이게 하자는 생각으로 가정마다 체험활동 꾸러미를 만들어 보냈습니다. 학습, 만들기, 요리 프로그램으로 구성하여, 활동 인증샷을 보내주면 선물과 함께 칭찬을 해주었는데, 아이들이 보내온 인증샷들이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쁜 접시에 담긴 먹음직스러운 음식 사진을 주고 받으며, 비록 서로 직접 만나지는 못해도 함께 하고 있다는 마음이 느껴져 행복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부모님과 김치전, 골뱅이무침, 케이크 등을 같이 만들면서, 서로 대화하며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을 준비한 선생님들의 노고 덕분에 팬데믹 속에서도 가정의 평화로움이 찾아오고,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잊을 수 없는 첫 여름캠프

팬데믹이 끝나고, 센터가 개소한 이후 처음으로 '여름캠프'를 떠났습니다. 얼마나 좋았던지, 지금까지도 여름을 추억하며 다시 가고 싶다고 말할 정도이지요. 여름캠프는 낮에 오션월드에서 재미있게 놀고, 1박 2일은 비전빌리지에서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오션월드도 재밌었지만, 비전빌리지에서의 추억이 더 행복하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숙소에서 편하게 쉬고 맛있는 밥을 먹은 소소한 것부터, 넓은 자연 속에서 맑은 공기에 축구, 농구를 하며 신나게 뛰어놀고, 수영장에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한 것, 저녁에 모두 함께 게임을 하며 킥하면 먹은 것, 함께 자면서 친구의 발에 눌러 잠이 깬 것, 늦잠 자는데 깨어날까 걱정해 친구들이 조용히 이불 정리하는 모습에 감동했던 것 등 에피소드도 참 다양합니다. 그날의 추억을 하나씩 꺼낼 때마다 늘 박장대소와 웃음바다가 된답니다. 첫 여름캠프가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기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써주신 오륜교회와 사무국, 차량팀과 프렌즈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꿈나무에 자양분이 되는 센터

센터를 운영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아이들이 기특하게 잘 성장한 모습을 보았을 때입니다. 특히 센터에서 진행하는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이 자기가 재밌어하는 부분을 찾아가는 모습에 놀라기도 합니다. 지난 프로그램 중에서 장수풍뎅이를 키웠던 아이가 고등학교 미래곤충산업과에 지원하여 합격하였고, 예술적 감성이 남달랐던 아이는 도자기공예과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정말 기뻐했습니다.

지난 12월에는 센터 아이들이 '희망나무축제'에 어쿠스틱 기타 연주로 참여했는데, 강동구지역아동센터 연합으로 1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는 발표회였지요. 부끄러움이 많은 청소년들이라 보니 동물 옷으로 최대한 가리고, 앞에 보이는 게 없어야 무대에 오를 수 있다며 익살스러운 선글라스가 필요하다는 등 축제 전에 어수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려고 모이고, 연습 삼매경인 모습이 너무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이 아이들 중에 훌륭한 어쿠스틱 연주가 나오지 않을까 즐거운 상상과 기대를 해보기도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센터

센터가 지금까지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울고 웃으며 이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준 아이들과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론 아이들과 지내며 가끔 머리가 쭈뼛 설 때도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아이가 눈을 뚱그랗게 뜨고 "선생님! 지금 저 혼내시는 거예요?!"하고 되물을 때이지요. 워낙 아동 폭력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다 보니, 아이들에게 필요하고 올바른 성장을 위한 가르침마저 오해받고 왜곡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 보호자, 선생님 모두에게 서운한 마음과 상처가 남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센터 선생님들의 역할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센터 선생님들 모두 각자의 역할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고, 협력하고 공감하며, 때론 눈물도 흘리며 함께 해왔는데, 각자의 자리에서 훌륭한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셔서 가능한 일들이었다고, 그동안 고생하셨고,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고 행복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곳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역할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프렌즈와 프렌즈의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후원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센터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이 되어 주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컬러는 사랑입니다.

- (사)한국컬러테라피협회

여러분들은 어떤 컬러를 좋아하시나요?
컬러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사)한국컬러테라피협회인데요,
프렌즈와 업무협약을 맺고 꾸준히 재능기부로
함께하고 있는 김규리 회장님과 운영진들의
마음은 어떤 아름다운 컬러로 표현할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먼저 프렌즈 후원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컬러로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한국컬러테라피
협회(이하 '협회')의 김규리 대표입니다. 프렌즈 후원자분들
과 만날 수 있어서 반갑고 기쁩니다. 2021년 12월부터 프렌
즈와 심리적 약자를 위한 컬러테라피 재능기부를 진행하고
있어요. 프렌즈와 함께 일하면 언제나 마음이 포근하고 뭉클
해집니다. 그래서 더 즐겁게 협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협회가 생소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 협회는 컬러테라피에 대한 연구, 전문 인력 양성 및 국
제 교류 등을 통하여 한국의 컬러테라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급
해진 우리 마음을 컬러로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콘텐츠
를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고, 컬러테라피스트를 전문
적으로 양성하며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
습니다. 또한, 심리적 약자를 위한 재능기부를 통해 시민의
정서 확립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사회공헌사업도 진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프렌즈와 만나게 되었지요.

**협회와 프렌즈가 만난 지 벌써 2년이 되었다니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협회에서 함께 활동하시는 운영진분들과
처음 재능기부를 결정하실 때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전혀요~ 협회를 설립하며 비전과 사업 방향을 설정할 때 운
영진들의 마음이 모두 한 방향이었거든요. 각자가 체험한
컬러테라피의 긍정적인 효과를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나누
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활용이 가능한 '컬러'
라는 도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선순환시키
고, 삶에 환원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쁘게 재능기부를 하고
있답니다.

**함께 했던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컬러테라피 시간을
매우 기다렸다고 하던데요! 그 현장에 계셨던 이현영 이사님,
어떠셨나요?**
프렌즈와 처음 활동을 시작했던 오륜레인보우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생각나네요. 지난 시간을 기억해주고 오늘은 무엇

을 할까 기대하던 아이들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요. 첫 만남
에서는 낯설어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다시 만날 때는 반가
움도 표현하고, 그림과 색깔로 속마음까지 솔직하게 표현해
주는 것을 보며 저의 진심을 느껴준 것 같아 고맙고 뿌듯했
답니다. 평소 자주 만날 수 있는 선생님이 아니라서 더 솔직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발견한
아이들의 마음을 담당 선생님께 잘 전해드리고자 했고요, 아
이들에게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잘 챙길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난민 가정과도 함께 하셨죠?
맞아요. 모든 과정이 소중하지만,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무지
개 바람개비를 만들며 색깔 하나하나에 난민의 소원을 적었
던 시간인데요, 또래 친구들과 비슷한 투정 섞인 바람이 아
닌, 생존과 가족을 걱정하는 소원이 담겨있어 안타깝기도 했
습니다. 그때는 애써 괜찮다는 위로보다, 어둠 속에서도 여
전히 빛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했
는데요, 그 마음을 알아주듯 반짝이는 눈빛과 마음으로 다음
시간을 기대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고 감사했습니다.

**길리청소년지역아동센터에서 활동하신 노인숙 이사님의
소감도 듣고 싶습니다.**
저는 중학생들과 4주간 귀한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
춘기 청소년들이라 보니 마음을 모두 오픈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컬러를 통한 마음 나눔과 컬러 체험을 통해 아이
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고, 그 마음에 공감하며 다가갔을
때 미소 짓고 호응하던 모습에서 내면의 순수함을 볼 수 있
었어요. 컬러에 대해 열심히 질문하고 매시간 컬러 작업에
즐겁게 참여하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주었던 모습도
기억나네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이 더욱 긍정적인 빛을 내
고, 밝은 미래를 향해 꿈을 갖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활동했던 저에게도 뜻깊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국제한가족센터의 글로벌가족과 함께한
재능 나눔 행사도 성황리에 잘 마쳤는데요,
부스별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어서 가족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부스를 맡아 운영하셨던
여러 이사님들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이현영 이사 컬러 향수

직접 나만의 컬러 향수를 만들면서,
행복 향수, 아파트가 생기는 향수, 좋
은 사람이 찾아오는 향수 등 향수에 이
름을 짓고, 향기를 맡으며 지었던 다양한 표정
들이 떠오르네요. 한국 온 지 얼마 안 된 학생은 친구가 생
겼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았고, 엄마와 함께 온 아이는 엄마
가 화났을 때 이 향수를 뿌리면 화가 사르르 풀렸으면 좋겠단
고 말하며 엄마와 함께 미소를 지었습니다. 덕분에 함께하는
내내 제가 더 행복했고 따뜻했어요.



김연우 이사 퍼스널컬러

부스에 오신 분들이 진단 천을 두르고 거
울을 보며 어색하게 웃으시면서도 자신
의 색을 찾아가며 기뻐하는 모습이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또한 이런 좋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했고요. 작은 재능 기부를 통해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누며 의미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어요.



이현아 이사 퍼스널컬러

이번 행사를 통해 각각 나라는 다르지
만, 컬러라는 주제로 하나가 될 수 있
고 색을 통해 행복을 전달할 수 있어 마음
따뜻해지는 시간이었어요. 또 퍼스널컬러를 통
해 자신의 매력을 잘 알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 뜻깊은 하루였습니다.



(사)한국컬러테라피협회
운영진 8인



김민영 이사 컬러 미러



마음에 끌리는 컬러 미러를 진지하게 고르고, 그 컬러에서 느껴지는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개인의 고민과 이야기를 꺼내놓는 분들이 계셨어요. 컬러에 담긴 심리와 스토리를 흥미로워하는 분들도 많았고요. 컬러테라피스트로서 제가 갖고 있는 전문성을 통해 나눔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마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노인숙 이사 컬러 미러



컬러를 통해 따뜻한 사랑을 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택한 컬러에 대한 마음을 잃어드렸을 때 눈시울을 적셨던 분, 밝게 웃으며 삶의 다짐을 하신 분 등 짧은 시간이었지만 언어와 국적을 넘어 함께 마음을 공감하는 시간을 나눴습니다. 특히 다문화가족분들이 언어와 문화 차이의 어려움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셔서 예쁜 무지개색이 연상 되었어요. 그 다양한 색이 하나로 모여 밝은 빛을 내듯이 모든 분들의 마음에서 긍정의 에너지를 볼 수 있었고, 오히려 제가 더 삶의 의지와 힐링을 받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박지혜 원장 두피진단(후원자)



저는 참여자들의 따뜻한 마음씨와 배려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도와주는 모습에 반했습니다. 한국말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통역해주시고 같이 공감해주시는 모습이 저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두피는 다양한 건강상태를 말해주는데, 참여자 대부분이 두피 상태가 좋지 않았어요. 앞으로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가지고 밝은 에너지를 갖고자 노력하신다면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득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오히려 힐링된 것 같아요.

이진미 이사 오라کم



참가자들이 전체적으로 컬러에 관심도가 높았어요. 테스트 결과 검붉은 빨간 색이 많았는데 한국에서 다문화가정으로 살면서 외롭고 힘들었던 상태가 그렇게 나타난 듯 했습니다. 글로벌가족들과 함께 마음을 서로 공감하고 돌보게 된 기회였습니다!

김승희 이사 컬러링 하트



참여자들이 하트모양에 컬러링을 하셨는데 무의식적으로 고른 색깔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각자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었어요. 무지갯빛 하트,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마음이 담긴 하트, 불안정하고 불안한 마음이 담긴 하트가 있었는데 어떤 분은 뭔가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느낌의 하트를 표현하기도 하셨죠. 이렇게 각자의 마음을 떠올리며 하트에 색을 채워나가면서, 컬러를 통해 몰랐던 자신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아 뿌듯했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너무 좋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프렌즈와 구독자들에게 나누고 싶은 한마디!

팬톤(Pantone)이 발표한 2024년의 컬러는 피치퍼즈(peach fuzz)입니다. 핑크와 오렌지의 혼합색으로 복숭아빛과 비슷한 색인데요, 보는 것 자체로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는 로맨틱한 사랑의 색입니다. '무언가 더 필요해', '더 많이 갖고 싶어' 보다는 '지금도 가득해' '사랑이 넘쳐'라고 자신에게 말해보길 추천하는 색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내 주변은 감사함으로 넘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해 여러분들 모두 달콤한 솜사탕처럼 행복한 일상을 누리시길 (사)한국컬러테라피협회가 응원합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 친구들 프렌즈 후원 안내



QR코드를 찍어 더 자세한 후원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후원 가능한 사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해외아동을 위한 결연사업과 국내의 사업이 있습니다. 아동결연은 후원자님과 후원 아동이 1:1로 결연을 맺고 개별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형태로 진행되며, 사업장별로 아동의 필요를 고려하여 학비, 학용품, 영양급식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은 교육, 직업훈련, 지역사회개발, 급식, 보건의료, 긴급구호사업이 있으며 국내사업은 취약계층지원, 아동복지사업(지역아동센터), 유학생장학사업이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후원 목적에 따라 지정후원할 수 있으며, 사업 전반에 걸쳐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지정사업후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후원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프렌즈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을 희망하시는 사업 및 결제방법, 결제일을 직접 선택하여 신청해주시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후원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대표전화로 연락 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 주시면 후원 신청을 도와드리겠습니다.

Contact information: 02-483-5007, www.hifriends.or.kr, '사단법인 프렌즈' 친구 추가. Includes an illustration of a person thinking.

후원을 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프렌즈는 지정기부금단체로 기부금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개인은 소득금액의 최대 30%까지 공제 가능하고, 세액공제율은 15%이며,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까지 가능합니다. 법인은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프렌즈의 후원자분께는 연 2회 생생한 현장 소식이 담겨있는 소식지를 보내드리며 신규 아동결연 시 아동카드 및 사업장소개서, 결연안내서를 보내드리고, 매년 아동의 성장보고서와 성탄카드를 보내드립니다. 개인 정보가 변경되었거나 소식지와 결연 관련 소식을 받지 못한 경우 사무국에 알려주시면 빠르게 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 변경 시 미리 연락 주시면 소중한 후원금이 낭비되지 않고 더 의미있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 후원금 납부

계좌 잔고 부족 등 여러 이유로 후원금 납부가 되지 못한 경우, 10일 단위로 2회 추가 재출금을 시도합니다. 직접 납부를 희망하시는 경우 홈페이지의 후원페이지를 활용하거나 대표계좌로 이체 해주시면 됩니다.

Supporter information: Last donation status, representative account info (국민은행 777501-04-111940), and next steps (홈페이지 우측 상단 '후원하기', 후원방법 '일시', 후원항목 '미납후원금 납부').

*아동결연금은 아동에게 1:1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결연후원금이 연내 5회 이상 미납될 경우 후원이 종결됩니다. 후원자분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

프렌즈 후원에 대해 더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프렌즈의 카카오톡 채널을 친구 추가해주시면, 더 많은 정보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프렌즈의 카카오톡 친구가 되어 주세요.

후원내역 및 정보 확인

프렌즈 홈페이지에 가입하시면 후원 내역 및 결연 아동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선으로도 안내드리니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2023 프렌즈 하반기 News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 봉사단 '함솔이'와 함께한 핸즈온 봉사활동

8월 17일, LG에너지솔루션 임직원분들과 컬러링 티셔츠와 에코백 만들기 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으로 직접 찾아가 만난 '함솔이' 봉사단은 '함께, 엔솔의 줄임말로 임직원 중에서 봉사활동에 의미를 두고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분들의 모임이었습니다.

다른 봉사자분들의 완성작을 보며 탄식하며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으나, 막상 활동이 시작되자 처음 접하는 활동임에도 툭툭 튀는 예술 감각을 펼치는 분들이 많아 놀라웠습니다. 서로의 작품을 보며 감탄하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즐겁게 활동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과 숨씨를 나눠주신 함솔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프렌즈 핸즈온 신규키트 -컬러링 우드장난감 출시

(주)씨앤씨코디(대표 오사갑) '와플목 공방'과 함께 만든 핸즈온 신규 키트가 제작됐습니다. 신규키트는 가벼우면서도 탄탄한 품질의 나무 바탕에 각인된 밑그림을 따라 염색 마카로 색칠하여 완성하는 '컬러링 우드장난감'으로,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인 공룡캐릭터 2종으로 탄생했습니다. 다른 핸즈온 완성품과는 달리 발 부분에 바퀴를 끼울 수 있어 움직이는 장난감이라는 점이 특별한데, 만들다가 왠지 갖고 싶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만큼 현지 아동들에게도 더욱 즐거운 놀이 친구가 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물론 이 공룡 친구들은 여러분의 손길이 있어야 완성된다는 거 아시죠? 해외 아동들에게 이 우드장난감이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뜨거운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도네시아 PSA프로젝트 확대

2023년 상반기 인도네시아 끄삼벤 지역 3개 마을(Boro, Bumirejo, Pagerwojo)에서 시작된 PSA프로젝트가 하반기에는 말랑 남부지역 4개 어촌 마을(Sendang Biru, Bajulmati, BatuBengkung, Sidodai)로 확대되었습니다. PSA프로젝트는 어린이 CHE (Community Health Evangelism)와 방과후교실을 융합하여 만든 프로젝트로 학습 지도는 물론, 아이들의 전인적인 영역, 즉, 영적, 육적, 사회적,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PSA는 시설 투자와 같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외부 자원보다는 내부 자원으로, 단발성이 아닌 지속 가능하도록, 그리고 마을위원회와 같이 운영의 결정권을 현지인들이 가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춰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 35명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큰 호응을 얻어 130명으로 확대되었으며 최근에 개최된 캠프와 학부모 세미나 또한 폭발적인 관심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PSA프로젝트를 통하여 아이들의 전인적인 성장과 함께 학부모와 가족,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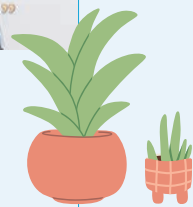
사랑의헌금과 함께 만들어가는 소망

2023년 다니엘기도회 사랑의헌금을 후원받아 선천성 다리기형 환아(옥타비나)를 위한 긴급수술지원과 6개 프로젝트(차드 내 수단 난민을 위한 긴급 식량 지원, 라오스/케냐/페루 아동 및 청소년 급식, 태국 빈민가 긴급 식량 지원, 네팔 시각장애인 자녀를 위한 방과후프로그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세계 100개국 16,267개 교회가 함께 참여하면서 성도들의 정성스런 후원과 기도를 통해 조성된 사랑의헌금은 매년 국내외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긴급의료비와 각종 프로젝트를 위해 전액 후원되고 있으며, 프렌즈 또한 매년 이 후원을 통해 지구촌 이웃의 회복과 생명을 살리는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욱 의미있고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직원역량강화를 위한 퍼실리테이션 교육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국제개발협력사업과 비영리단체를 위한 찾아가는 퍼실리테이션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교육은 ACP(Affective, Cognitive, Practical)연구소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사전점검 및 강의와 워크샵 등 3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퍼실리테이션 기법을 적용한 활동 및 사업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강점과 가치 기반의 발전적인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 과정을 후원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프렌즈가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ACP연구소의 정유진 대표님과 전운리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해피빈&포스코와 함께하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한 1%의 나눔

국내 우크라이나 난민 가정에 건강한 미래를 선물하기 위한 해피빈 모금이 진행되었습니다.

11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된 이 모금은 본래 3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포스코 1%나눔재단의 1% 마리채 지정 기부를 받게 되면서 1개월만에 모금목표액 987만원 전액을 확보하게 되어 초기에 종료하게 되었습니다. 포스코 1%나눔재단은 포스코그룹 및 협력사 임직원의 기부와 회사의 매칭그랜트로 운영되고 있으며 '나의 작은 자선(My Little Charity)'에서 이름지어진 1% 마리채는 포스코 가족이 함께하는 나눔 프로그램입니다. 이 후원을 통해 국내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난민 아동의 자기 정체성 발견과 진로 탐색을 위한 HTP검사 외 5개 검사 및 분석, 상담 및 일대일 개별 코칭이 이뤄질 예정이며, 난민 가정을 위한 회복탄력성 그룹 활동과 가족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구촌에 희망을 주는

좋은친구 FRIENDS



사단법인 프렌즈

서울특별시 강동구 풍성로 189 금성빌딩 2층

Tel 02-483-5007 Fax 02-6007-9857 E-mail friends@hifriends.or.kr



후원계좌 안내

예금주 사단법인 프렌즈

후원계좌 국민은행 777501-04-111940 / 신한은행 100-023-015009

